

이야기 4 :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주제말씀
[마태복을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어요. 그곳에는 어부였던 형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후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낚시전문가였어요. 밤새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또 그물을 내려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 보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가까운 곳에 있던 아고보와 요한 형제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해 주는 어부가 될 거야!” 그들은 모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아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마태는 그 말씀을 듣자 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아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단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함께 다니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되었어요.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말이예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우세요 (마태복음 4:19)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활동 2.

아래 물고기를 오려서 그물에 붙여 보세요.



